

무의식을 흔드는 ‘낭만’에 귀 기울이기

교수칼럼



전윤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얼마 전 이야기다. 강아지를 맞이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새로운 집에서 긴장했던 탓인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나기를 며칠, 안쓰러운 마음에 잠들기 전까지 쓰다듬어주어 보기도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금세 깨는 바람에 함께 덩달아 잠을 설쳤다. 안쓰러움이 걱정으로 넘어갈 때 즈음, 강아지가 가까이에서 이름을 불러도 모를 만큼 곤히 잠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내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쇼팽의 녹턴 음반을 들어놓곤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기척이 없어 들여다보니 강아지가 배까지 내밀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저 며칠 많이 퍼끈해서 꽂아뗐어진 줄로만 알았지, 쇼팽의 음악이 강아지에게 안정을 주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역시 녹턴을 틀고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까지만 해도 총총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어느새 방석에 엎드리더니 식사시간 내내 잠든 것이 아닌가! ‘설마, 음악 때문일까?’

확인이 필요했다. 오전 내내 오디오를 끄지 않기로 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오전 내내 한 번도 깨지 않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자세로 잠을 잤다. 그 뒤로도 10번 중 8번은 거짓말처럼 “음악=잠” 공식이 들어맞았다. 정말, 음악 덕분이었다.

쇼팽의 곡은 센터멘탈하고 조곤조곤한 속에 넘치는 낭만이 있다. 한 마디 한 마디 사연이 느껴지는 이야기처럼 아주 짙게 삶이 투영되어 있지 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아마도 내성적인 쇼팽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차분하다. 감정을 강렬하고 여과 없이 전달하고자 했던 베토벤이나 슈만의 곡과는 달리 쇼팽의



음악은 지친 일상에 위로를 선사하고 인간 감정의 깊숙한 곳을 훔들어 깨운다

(사진=중앙일보DB)

곡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한발자국 물러나 조망하고 사색하게 만든다.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베토벤 곡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자꾸만 신경이 귀로 집중되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인데, 쇼팽의 곡은 식사에 더욱 집중을 하게 만든다고 말이다. 강아지에게 숙면을 선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음악은 우리의 심리상태,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누구나 추억을 소환하는 음악 한 곡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만화 주제곡이 되었던 옛 연인을 그리는 노래가 되었든, 혹은 직접 연주했던 곡이 되었든 그 시절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데에 음악만큼 확실한 타임머신이 또 있을까. 나 역시 늦게 음악을 시작했지만 키스쟈렛의 음반을 들으며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었고, 지금도 키스쟈렛의 곡이 나오면 몇 주 동안 밤을 새며 연습했던 20살의 열정이 떠오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음악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안정감과 위로를 선사하기도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 엄마가 즐겨듣던 음악을 틀어주곤 하는데 신기하게도 장르를 불문하고 뱃속에서 들은 듣던 음악이 나오면 신생아들은 금세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한 백작의 볼

면증 치료를 위해 작곡되었다는 바 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뇌파와 심박수를 진정시킨다는 사실이 몇몇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내게 음악은 특효약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하루 종일 계단을 뛰어다닐 정도로 바쁜 날의 끝에는 꼭 에디 히긴스와 막스 리히터의 음반을 꺼내 듣다. 머릿속 생각들은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신없었던 하루는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된다. 작년,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피아노 소품집을 작곡하고 발매하며 집중했던 단 한 가지의 가치도 바로 “쉼”이었다.

“듣다가 졸리면 언제든지 주무셔도 좋아요. 그만큼 이 음악이 편안하다는 뜻이니까요.” 소품집 발매 공연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집중보다는 잠을 권유할 만큼 음악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편안함을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간 감정의 깊숙한 곳, 무의식을 자연스럽게 훔들어 깨우는 힘 때문에, 정치와 사회, 비즈니스의 곳곳에 음악이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했고,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음표 속 깊숙이 메시지를 새긴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재즈가 흑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그 옛날 청소년들을 한 군데 모은 것도, BTS의 음악이 전세

계를 뒤흔든 것도 아마 연설과 설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음악의 힘일 것이다.

“음악은 순간의 공기를 바꾼다.”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음악 디렉팅을 할 때마다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다. 유명 호텔들은 유행하는 가요나 잔잔한 피아노 음악 대신 신비로운 느낌의 일렉트로닉 사운드, 라운지 스타일, 아주 동양적인 화음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한 음악 등, 그들만의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경우가 많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외부와는 완벽히 분리되는, 그래서 세상 모든 번뇌를 잊게 만드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이다. 어떤 음악은 구매욕을 더욱 자극하기도, 어떤 음악은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 공간 회전율을 높이기도 한다.

바로 옆에서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숙면을 취하는 강아지를 보면, 새삼 음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강력한 힘을 실감한다. 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의 교수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언어로 음악의 가치를, 위로를, 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본다. 오늘 하루 주변에서 들리는 음악에, 혹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조금 더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참여마당

경희동행 소모임 전 단장
정재원(일본어학 2017)



함께 있어 더할 나위 없다

삼수 끝에 어렵사리 대학에 합격 했으나 내가 꿈꾼 대학 생활과는 동떨어진 현실. 그때서야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광고가 잔뜩 쌓인 메일함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대외활동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찾아보았다. 대학에 오기까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는 교육봉사를 택했다.

‘서울동행프로젝트’가 말하는 ‘동행’은 ‘동생행복’의 줄임말이다. 대학생이 초, 중, 고 ‘동생’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봉사활동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혜자인 ‘동생’이 우선이었지만 현재는 대학생의 성장에도 초점을 맞춰 봉사자 성장프로젝트의 의미도 갖는다. 물론 ‘동행(同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같이 간다’는 이 말에 나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교류를 통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다는 의미도 보태고 싶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생활비,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과외를 한다. 과외비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내주는 돈이다. 하지만 그런 금액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출발이 평등하지 않은 채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동행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 우리 대학생은 입시를 가까이서 겪었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대학생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수혜학생들은 대학생 봉사자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학업에 대한 동기를 얻게 된다.

성장하는 기쁨

함께하기에 더욱 빛나는 순간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며 교육봉사를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완전히 잊어버린 입시 내용을 다시 봐야하는 수고로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내가 동행을 아직도 못 놓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을 만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발견이었다. 그 누구와도 친해지기도, 어디에도 정붙이기 힘들었던 그 때, 나와 같이 ‘동행’ 해준 선배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지난 2년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작년 여름, 전공연수에서 탈락하고 심기일전으로 도전한 네팔 동행해외봉사는 내 인생에서 있을까 말까한 값진 기회였다. 각 지역에 퍼져있는 다른 대학생 봉사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교육방식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 더운 여름날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며 준비한 프로그램, 새로운 문화, 뜨거운 네팔 햇빛 아래 열기를 잊게 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경험과 인내심, 소중한 사람들을 얻고 간다. 나를 스쳐간 여러 사람 중 어떤 이는 정말 그렇게 스쳐지나갈 수도, 어떤 사람은 같이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같이 고충을 털어 놓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학친구가 되어있었다. 자, 당신들도 나와 함께 동행(同行)하지 않을 텐가.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